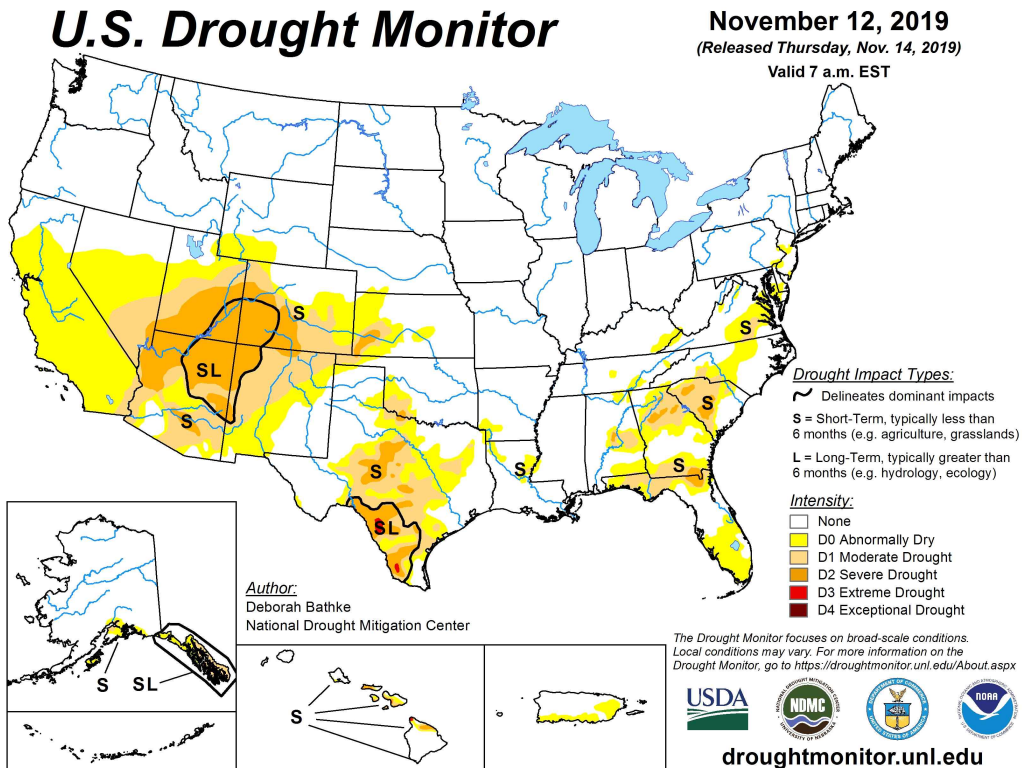


11월 1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86)

□ 미국 기후 현황(11/10~11/16)

평원 북부, 중서부, 남부의 중앙 지역에 먼저 내렸던 눈이 한바탕 일어난 찬 공기에 더해졌다. 옥수수 벨트에서는 이 눈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옥수수와 콩의 수확기에 곤란을 더욱 가중시켰고, 일부 밭에는 젖은 흙 때문만이 아니라 낱알이나 기름 종자의 높은 수분 함량 때문에도 여전히 수확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상태다. 지난 주 따뜻해지는 추세였지만 중앙 텍사스에서부터 미네소타까지 이어지는 선을 따라 그리고 동쪽에 있는 많은 지역들에서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10° F 이상 낮았다. 중서부 일부에서의 평균 수치는 평년보다 15° F 이상 낮았고 심한 결빙이 11월 10일 현재 47%가 수확된 루이지애나의 사탕수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 대분지, 사막 남서부 (미국 남서부)의 많은 곳들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10° F 높았다. 주말에는 최남동부 지역(Deep South)에 걸쳐 있던 폭풍전선이 멕시코만 서부와 중부 지역에 소나기를 내려주었는데 대서양 연안을 따라 남부 근처에 강한 비와 강풍을 일으켰다. 남동쪽에 내린 비는 야외 작업을 지연시키거나 정지시켰지만 초가을 가뭄의 영향을 더욱 완화시켜주었다. 태평양 북서부에서는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렸는데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평원 남쪽 절반에 이르는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은 날씨가 건조하여 가을 야외 작업에 유리했다. 하지만 남서부와 고원 일부를 가로질러 계속해서 가뭄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서 방목지, 목초지, 가을에 파종한 일부 소곡류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



□ 농업 현황 요약(11/11~11/17)

한 주간 동안 나라 대부분에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예외적으로 대서양 연안 남부 일부에 있는 몇 곳에 3 인치 이상 내렸다. 미국 동부 대부분에서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4° F 이상 낮았다. 오대호, 중서부, 낮은 미시시피 계곡, 멕시코 만 일부는 평년보다 12° F 이상 낮았다. 대조적으로 캘리포니아, 남서부, 태평양 북서부 일부는 평년보다 4° F 이상 높았다.

□ 세계 기후 현황(11/10~11/16)

■ 유럽: 남쪽 재배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건조 및 가뭄 포켓이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유럽의 많은 곳에 걸쳐서 폭풍우가 이는 날씨가 계속되었다. 한 쌍의 강한 태풍 전선이 대서양 북동부에서부터 남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지중해 중앙에서부터 서서히 북쪽으로 방향을 꺾으면서 서유럽과 남중앙유럽의 많은 곳에 호우, 강풍, 해안 홍수를 일으켰다. 주간 총 강우량은 프랑스 남동부, 이탈리아, 서발칸을 포함하여 대서양 연안 근처 지역에서 100 mm까지 올라갔다. 그 폭풍은 유럽 북동부에는 다소 가벼운 소나기 (10-40 mm)를 뿌렸고 독일과 바로 인접한 인근에서는 가볍거나 적당한 소나기 (1-15 mm)가 보고되었다. 이런 습기 찬 날씨는 토양 수분을 겨울 작물에 적당하게 또는 풍부하게 유지해주었고 서유럽과 남중 유럽의 많은 곳에서는 30일 강우 총량을 평년의 200 %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지역적으로 300 % 이상). 하지만 세르비아와 다뉴브 강 계곡 아래쪽은 계속된 가뭄 포켓으로 과거 9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지역적으로 평년의 50 % 미만) 밀과 유채의 활착을 제한했다. 중앙 및 서쪽 재배 지역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5° C 낮았고, 동유럽에는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상태 (평년보다 최대 9° C 높음)가 계속되었다.

■ 호주: 밀 벨트 거의 전체가 건조한 날씨여서 밀, 보리, 캐놀라의 성숙과 수확이 촉진되고 있었다. 건조한 날씨가 성숙 중인 겨울 작물들의 품질을 유지하는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가뭄으로 황폐해진 동호주에서는 재배 초기부터 있었던 면화와 수수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뉴사우스웨일즈와 퀸즐랜드 남부에서 들불이 증가하여 몇몇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졌는데, 이 문제에 건조한 날씨와 가뭄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다. 평균 기온은 동호주에서는 평년 근처였고, 남호주는 평년보다 1-2° C 낮았고, 최고 기온은 대략 높은 섭씨 20도대에서 중간 30도대였다. 서호주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4° C 낮아서 겨울 작물의 성숙과 건조를 가속화시키고 있었다.

■ 아르헨티나: 핵심적인 남부 및 서부 농지대에서는 소나기가 내려서 겨울 곡물의 발달과 여름작물의 발아를 위해서 아주 필요했던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연속해서 내린 강우 사이에 때 아니게 뜨거운 날씨 (낮 최고 기온이 섭씨 중간 30도대)로 인해 작물의 수분 수요량이 다시 올라가기는 했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라 팜파에 있는 남부 생산 지대에서는 총 강우량 10-25 mm의 비가 생식생장 및 종실비대 중인 밀과 보리에게 유익을 주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낮은 파라나 강 계곡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 엔트레 리오스, 산타 페 남부)은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낮 최고 기온이 낮은 30도대에 도달하여 스트레스 성 열 없이 작물의 발달을 촉진했다. 한편, 북부 농업 지대에 (살타에서 코리엔테스까지) 적당하거나 심한 비 (10-50 mm 또는 그 이상)가 내렸는데 동부 면화 벨트 (산타 페 북부, 차코, 포르모사)에 가장 심한 호우가 집중되었다. 북부 농업 지대에서 낮 최고 기온은 서부 생산 지역의 높은 30도대에서부터 좀 더 습한 면화 지역의 낮은 그리고 중간 30도대까지의 범위에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1월 14일 현재 해바라기 파종은 72 % 끝나서 작년 추세와 비교하여 17 % 뒤쳐지고 있었고, 옥수수수와 콩 파종은 각각 42 및 20 % 끝나서 작년 추세와



비교하여 두 작물 모두 10 % 이상 뒤쳐지고 있었다. 면화는 42 % 수확되어 작년 추세보다 7 % 떨어졌다.

■ 브라질: 브라질 중부와 남부의 주요 생산 지역에 내린 적당하거나 강한 비가 콩과 기타 여름작물들을 위해서 대체로 양호한 조건들을 유지해주었다. 마토 그로소와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부터 동쪽으로 상파울로와 미나스 게라이스를 지나기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10-50 mm로서 그 지역은 4주 연속 대체로 유익한 비를 기록하고 있었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콩은 11월 14일 현재 97 % 파종되었는데 이와 비교해서 작년은 99 %였고 5년 평균은 92 %였다. 하지만 북동부 내륙의 많은 곳들은 (토칸틴스, 서바히아, 그리고 피아우이와 마란 하오에 있는 대부분의 농업 지역들) 다시 건조해졌는데 비가 불규칙하게 재배기와 아주 다른 시기에 내렸고, 때 아니게 더웠고 (여러 지점에서 낮 최고 기온이 40° C에 도달함) 건조가 이어져서 증발 손실을 증대시키고 있었다. 그밖에 파라나에는 적당한 비 (25 mm 이상)가 내려서 콩과 1차 옥수수에게 전반적으로 양호한 조건들을 유지해주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은 몇 주간 연속해서 습했었는데 다소 건조한 날씨 (10-25 mm)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주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11월 14일 현재, 옥수수는 81 % 파종되어 5년 평균 (82 %) 대비 약간 뒤쳐진 정도였고 콩은 5년 평균 36 % 대비 28 % 파종되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밀 수확은 80 % 끝나서 5년 평균보다 5 % 뒤쳐졌다.